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AUGUST 2022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24



7월 골프대회 @ Sunset Valley

골든클럽 7월 골프대회는 7월 14일 회원들이 좋아하는 Sunset Valley 골프장에서 shotgun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 주 동안 화씨 90도가 넘어 골프장에 약속한 회원 수를 채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무려 37명 (남 26, 여 11명)이 참가했다. 골든클럽 회원들의 강한 스태미나와 참여 의식에 감탄할 뿐이다.

전에 기술했듯이 Sunset Valley코스는 산 사이의 깊은 계곡을 따라 만들어 놓은 코스로 경관이 빼어날 뿐 아니라 길이는 비교적 짧아도 좋은 스코어를 내기는 어려운 코스로 유명하다. 금년 4월 사늘한 초봄 날씨에 가졌던 대회에서는 모두 평소보다 낮은 스코어를 내고 당황해하던 것이 기억난다. 하지만 이번에는 곳곳의 fairway의 잔디가 누렇게 탄 코스에서 90도를 넘는 더위에도 모두 땀을 뻘뻘 흘

리면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스코어를 냈다. 더위 먹으신 참가자도 없었고 오히려 더위 덕분에 몸이 잘 풀렸던 것 같다.

7월 대회 참가자 중 가장 senior는 김익성(상대53) 회원이었다. 더위 탓으로 자주 뱉던 노장 회원들이 많이 참석 못하셔서 안타까웠다. 현재 Peru에서 3-4천 미터 높이의 고산들을 하이킹 하느라 불참한 홍종만 회장의 견재를 바란다. 특히 반가운 얼굴은 금년 봄에 다리 골절상을 입어 한동안 걷지도 못하던 천병우(공대 70)회원이 있었고, 금년 8월이면 Atlanta로 이주하시는 한영수(의대61) 회원 부부께서 떠나는 인사 차 참여하셨다. 항상 건강하시고 자주 뵈기 회가 있길 바란다. 시상자들의 리스트는 3면에 기술되어 있다.

8월 골프대회는 Valley Brook GC에서

8월은 오랜만에 Bergen County에 있는 public course 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나무들이 예쁘게 가꾸어져있고 layout도 도전적이면서 거리가 길지 않아서 저희 클럽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일정을 확인해보시고 일주일 전인 8월 2일까지는 등록(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짜: 8월 11일 (목요일) 11시 (10시까지 도착바랍니다.)

장소: Valley Brook GC
6225, 15 Rivervale Rd, River Vale, NJ 07675

티박스: 선호하는 tee box (white/gold/red)를 등록시 알려주세요

회비: \$120

문의: 김정필 (201-965-7759)



이수호 박사 별세

지난 7월 4일 유명을 달리한 고 이수호 회원의 고별예배가 7월 7일 Flushing 중앙 장의사에서 가족, 친지, 동문 및 많은 문상객의 조위속에 김정호 목사 집례로 거행되었다.



한 의사 이수호 박사는 경희대 한의과 대학 및 대학원 (한의학 석사) 졸업 후 경희대 한의대 조교수로 재직, 1971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그리고 1983년 캘리포니아 SAMRA University of Health Science에서 Oriental Medicine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5년 도미, 1976년 뉴욕주 침술면허를 받고 뉴욕의 한인 의사들이 모여 설립한 한국의료원에서 3년, 중앙의료원에서 36년 진료 활동을 펼쳤다.

이 박사는 40여년 뉴욕 한인 및 타민족들에게 한방 및 침술의 효능을 알리는데 앞장서오며 1998~2001년 코넬대 의대와 플러싱 병원에서 침술과 책임자로 진료했으며, 2002년에는 Bridgeport 대 한의과 교수로 진료 감독을 역임했다. 저술로는 100여편의 학술논문과 최용태 경희한의대 침구과 주임교수와 공저한 침구학 7권이 있다.

서울대학교 뉴욕지역동창회 2022년도 제43대 이사회 및 야유회

제 43대 동창회 집행부는 아래와 같이 모든 동문들과 함께하는 야유회 겸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꼭 모두 참석하시어 동문들간에 돈독한 우애를 나누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 일시: 2022년 8월 20일 (토) 오전 11시-3시
- * 장소: Rockland Lake State Park (parking lot #2)
- * 주소: 299 Rockland Lake Rd, Valley Cottage, NY 10989
- * 참가비: 일인당 \$50, 등록회원 무료
- * 참석대상: 서울대학교 동창회 회원 및 동반인, 동창회에 유관한 모든 분
- * 안건: 임시총회 (43대 회장 및 임원 인준) 및 야유회
- * RSVP:
 - 이사장 성기로 917-751-4533
 - 회장 금영천 718-791-4397
 - 부회장 김정필 201-965-7759
 - 사무총장 김병순 703-407-4928

Barnes Museum 방문은 신청한 회원이 적고 최근 코비드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대형버스 임대료도 폭증하여 부득이 취소하고 다음 기회를 잡기로 하였으니 너그러이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 회원

"소박한 생각" 미술전시회

김광현회원이 서울대 미대 동문회와 뉴욕 Pratt대학 한국 동문회의 후원으로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소박한 생각" 이라는 주제로 2인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오랜 기억" Memory of 16, Oil on Canvas, 46.5cm x 62cm, 2022

회원동정

7월 14일 골프대회 보고

날짜: 7월 14일 12시 30분
 장소: Sunset Valley Golf Course, NJ
 참가인원: 37명 (Gold 16 White 10 Red:11)

Group	상	상금	이름	Gros	Net	Over
1 League (Gold)	1등	60	이상무	85	15	-4
	2등	40	김한중	88	18	-2
	3등	20	이용대	91	21	-2
2 League (White+ Lady)	1등	60	손대홍	91	21	-3
	2등	40	전병수	85	15	1
	3등	20	조승자	87	17	2
Close pin	3	40	한영수			
	6	40	한영수			
	12					
	15	40	김태일			
BEST EFFORT		20	이행순			

결산:

수입		\$	4,440.00
	참가비	\$	4,440.00
지출		\$	4,461.59
	Green fee	\$	2,980.69
	김밥	\$	279.00
	DINNER	\$	745.90
	상금	\$	380.00
	Beer	\$	76.00
결산		\$	(21.59)



골프후 Flaming Grill에서 있었던 뒤풀이



Gold 입상자와 함께
 왼쪽 부터 김정필 김한중 이용대 이상무

6월 피크닉 결산보고

날짜: 6월 16일 11시-3시
 장소: Rockland Lake State Park
 참가인원: 50명
 결산:

수입	이준행 후원금		\$1,000.00
지출			
	갈비와 부식	가든잔치	\$1,300.00
	상품	김정필	\$229.25
	샐러드	허유선	\$150.00
	지출계		\$1,679.25

협찬: 이민제 (맥주와 와인)
 홍종만 (차콜 /접시)

한영수 회원(의대61) 은 7월6일 Rivervale 골프장에서 80타를 쳐서 골든 클럽 회원 누구나 꿈꾸는 age-shoot을 달성했다. 그리고 당일에 동명이인의 부고로 인하여 많은 회원들의 마음을 조리게 했는데 하루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드문 경험을 하셨다. 7월 골프대회에서도 3번과 6번홀에서 연속으로 close pin을 하여 실력을 증명하였다 아쉽게도 8월에 Atlanta로 이주하신다고 하는데 계속 좋은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원한다.



이준 회원 (간호58)은 6월 16일 피크닉때 실족하여 고관절 수술받고 은혜요양원에서 회복이 잘되어 7월 21일에 퇴원하여 자택에서 정양중인데, 8월 뉴욕동창회 피크닉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요양원에 있을 동안 방문과 전화 그리고 기도로 격려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다고 전해오셨다.



평의원대회에서 오세경 서울대총장 김중섭 총동창회장과 함께 한 뉴욕동창회 방문단

서울대학교 뉴욕동창회 43대 동창회 시작의 변 플라시보(Placebo) - 노시보(Nocebo)

■ 동창회 회장 김영천

Placebo 효과란 약효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속여 환자에게 주었을 때, 환자가 진짜 약으로 믿고 복용함으로써 실제로 환자의 병세가 호전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Placebo란 말은 라틴어로 '마음에 들도록 한다' '가짜약'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자말로로는 위약효과(偽藥效果)라고 하며, 의학, 심리학 등 학계에서 공인된 효과입니다. 감기에 걸린 환자에게 소화제를 감기약이라고 속여서 주었는데 이를 복용한 환자가 실제로 감기가 치료되었을 때처럼, 약물 성분이 없는 약일지라도 환자가 치료 효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며 특히 만성 질환이나 심리상태에 영향을 받기 쉬운 질환에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Nocebo 효과란 '해를 끼친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진짜 약을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약의 효과가 없거나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미국과 그리스, 덴마크, 이탈리아 대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호소하는 두통과 피로감과 같은 부작용 증상들의 76%, 두 번째 접종 후 거의 52%는 Placebo 효과의 부정적 version인 Nocebo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lacebo 효과처럼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Pygmalion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는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 암시의 예언적 효과를 통해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변하려고 노력하여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그말리온효과는 원래는 심리학 용어인데, 하버드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로젠탈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교육적으로 실험해 보았기 때문에 교육학에서는 '로젠탈 효과'라고 합니다. 로젠탈은 교사가 학생에게 거는 기대가 실제로 학생의 성적 향상에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양자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 루이 드 브로이 등은 "물질은 보지 않을 때는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관찰할 때는 입자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곧 관찰자의 관찰 행위에 따라 실재가 바뀐다고 합니다. "존재하기에 관찰되어진다" 보다는 "관찰하기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즉 관찰자가 진리라고 여기고 싶어하는 취향에 따라 진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뉴욕동창회는 동문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와 동문상호간의 신뢰로만 존속 가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동문들의 모임은, 그 모임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구성 요소인 서울대학교 동문들이라는 사실이며, 모임의 명칭은 단지 그것을 보는 관찰자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여질 뿐입니다.

그동안 동창회 임원회는 서울대 동문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나름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성과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습니다. 동창회의 활동에 부정적인 입장의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웠던 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동문들의 조건 없는 협조와 후원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동창회의 침체를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고, 앞으로도 동문들의 우호 증진과 동창회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동창회의 해외 동창회와의 협력 방안

지난 6월 LA에서 개최된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에 참석한 서울대 총동창회 김종섭 회장은 다음과 같은 해외 동창회 활성화 및 협력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미주동창회의 회원도 한국의 동창회원들과 동등하게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소지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일 예로 서울대 관련 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최대5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게 한다. (8월이후 구체적 방안 결정)

2. 강원도 평창의 서울대 분교 자리에 동문들을 위한 노후 주택을 건설해, 실비로 동문들의 노후 복지와 건강유지를 도울 예정이다.

3. 서울대 총동창회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음악회를 열고, 동창회 지부의 선양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뉴욕지역 동창회에서는 총동창회의 해외 지부 협력사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동창회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창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동문들과의 좋은 유대관계를 이끌어내고, 서로 돕고 협력하여 신뢰받는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동문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협조와 참여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격리 해제 뉴스 듣자마자 서둘러 간 한국

아무리 오랜만에 만나도 소중한 친구와 2020년 부터 약속했던 여행

■ 이행순(미대60)

친구가 짜 놓은 여정을 따라 평창, 속초, 강릉 -- 큰 딸 같은 조카 딸이 운전해서 3박 4일, 발왕산(1470 m) 케이블 카 안에서 내려다 보이는 절경, 4월 말이라서 벚꽃이 다 진 후였는데 이제서야 봉오리가 보이고 개나리 진달래가 피어 있고 눈도 소복이 쌓인 곳이 눈에 뜨인다. 두 번 봄을 맞이하는 느낌, 어디서나 뻑뻑이 들어찬 울창한 숲들- 어느 고장을 가도 서울과 다를 바 없는 아파트 빌딩들, 맛집이 여기 저기, 분위기 좋은 카페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좋았다. 예약된 호텔도 탁 트인 바다가 보이고, 걸어서 해변가로 내려가 싱싱한 생선회를 즐기고 바다 냄새 물씬 나는 밤공기를 마시며 걸을 수 있는 것도 좋았다.



서울에서의 2주 -- 가족 들과의 만남, 마침 어머니 날이 겹쳐 조카들과 친구 자녀들의 따뜻한 대접. 중년이 되가는 조카들이 효도 하려는 모습이 대견하다. 1000원에서 5만원권 새 돈을 봉투에 차곡 차곡 챙겨주는 조카, 동생이 있고 가장 맛 있다는 곳을 골라 예약 해서 대접하려는 주위의 친구 친척들이 있어 역시 내 고향이란 생각을 했다.

인상 깊은 일들 -- 음식물 분리 처리의 철저함, grocery 쇼핑 후 집 문까지 배달 서비스, 너무도 잘 되어 있는 하이웨이의 Silk Road, 양 옆에 소음 방지로 세운 높은 벽들, 잘 가꾸어진 공원, 곳곳이 만들어 놓은 운동기구 설비, 썬 터, 꽃 들 -- 한강 위에 떠있는 세빛섬 등 등

제주도 일정 -- 친구 콘도는 제주시 북관 16층, 3년전만 해도 한라 능선이 잘 보였는데 그 사이 뽕죽 뽕죽 올라간 빌딩으로 능선이 보인다 안 보이다 한다. 38층 Grand Hyatt 빌딩 꼭대기 커피숍에서 내려다 보이는 제주시는 뻑뻑이 들어찬 빌딩 도시.

제주에서 비행기로 여수, 택시로 남해로 가서 서울서 온 친구 들과 함께 관광, 마침 아네모네 꽃이 그 넓은 들판을 완전 뒤덮고 있는 장관 -- 환성이 절로 났다. 6천평이 넘는 곳을 가지각색 꽃밭으로 만든 사유 정원을 일반에게 입장료 받고 보여주는 그곳도 꽃들이 모



두 가장 예쁜 모습을 자랑하고 있어서 꽃 좋아하는 나에겐 너무도 행복한 순간이었다. 독일인의 Village, 박원숙 카페 등 2박 3일 뜻 깊은 여정이었다.

서귀포 잠수함 타고 내려가면 불만하다고 해서 큰 기대를 갖고



[7면하단에서 계속]

콜라겐(Collagen)은 암의 재발과 전이를 방지할 수 있을까?

■ 오 순문 (사대68)

Mount Sinai연구진이 밝힌 암 재발에 대한 콜라겐의 효과

작년 12월 13일 New York Mount Sinai 연구진은 암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콜라겐 III형(피부, 손톱, 기관조직, 뼈연결 부분에 많음)이 큰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Nature Cancer지에 발표했다. 암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사망원인 인데다, 전이로 인한 재발이 주요 요인이란 점 때문에 이 논문은 큰 기대와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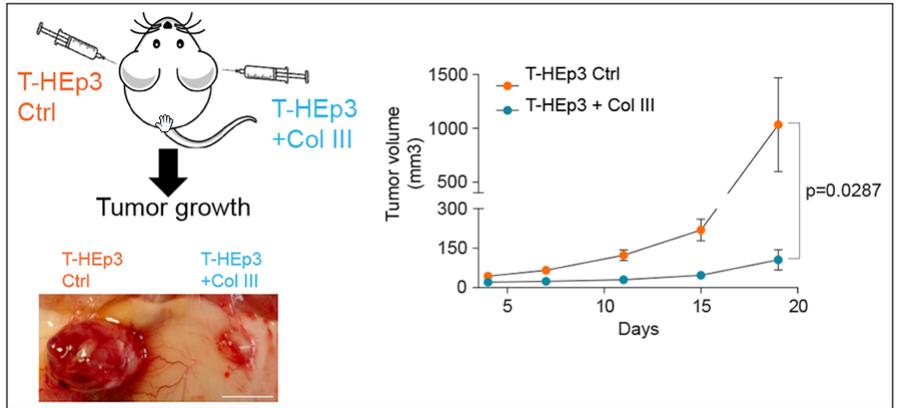
구진은 생쥐에 유방암과 두경부암 세포를 주입하고 뒤이어 콜라겐 III형을 주입했을 때, 암의 진행이 방해되고 암세포들이 휴면에 빠지는 것을 관찰해 사진으로 찍었다. 휴면 암세포들은 정상세포들보다 특정 유형의 콜라겐에 더 둘러싸여 있는데, 두경부암 환자의 샘플에서도 III형 콜라겐이 적은 암세포들이 더 쉽게 림프절 등으로 퍼지고 있었다. 생쥐 모델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둘러싸고 있는 콜라겐의 양이 감소하면서 암세포가 활성화 된다는 것과, 동시에 콜라겐이 라면 같은 물결모양에서 풀어진 선형으로 구조가 바뀐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암세포들은 처음 발생한 곳에서 떨어져 나가 퍼지면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검사에서 발견되기까지 길게는 수년 동안 휴면상태를 유지한다. 콜라겐은 암세포와 신호전달 과정에 있으며 이것이 방해 받을 때 악성으로 전환한다. 암세포가 수년간 잠자는 상태로 누워있다가 갑자기 깨어나 몸 전체로 퍼지는 이유와 메커니즘을 밝히고, 실제로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콜라겐의 주사량을 증가시키므로써 암을 휴면상태로 유지시키면서 재발을 방지했다. 연구진은 환자의 혈중 콜라겐 량과 나선형이 풀린 정도를 관찰해 종양재발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Biomarker로서 뿐만 아니라, 암세포가 휴면에서 깨어나 재발되지 않도록 콜라겐을 주입해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요약하면 환자의 혈중 콜라겐 변화를 관찰하면 암이 재발할건지, 더 잘 퍼지거나 전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판단하는 유용한 Biomarker가 될수 있고, 쥐에서 종양을 콜라겐 scaffold로 대체하면 종양의 성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만약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만 있다면 미래의 암치료를 획기적인 문을 열었다고 볼 수가 있다. 콜라겐은 이미 우리 몸의 30% 를 차지하는 물질로 나이가 들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부족할 뿐이지 새로 개발되는 약물들과 달라 독성이나 과다 부작용 등에 따른 우려가 적다. 적절한 량의 콜라겐을 보충해 암의 재발과 전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만 있다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의 급속한 감소와 어쩌면 암으로부터의 해방이란 꿈을 이룰지도 모른다.

일본 연구진의 인용 논문

다른 한편으로 약 20여년전 박형기 교수의 인용논문["돈피 콜라겐의 특성과 기능성", 한국 종축개발협회, 69(2005.4)]에서는 일본의 사들에 의해 확인된 돈피 유래 콜라겐의 항암효과 사례들을 보여주

고 있다. 후두암, 임파암, 발괴양 등에서 방사선 치료와 함께5% 돈피 콜라겐 젤리를 섭취해서 괄목할만한 치료효과를 거뒀다고 한다. 또한 오사카 대학 야마나카 박사의 실험을 인용했는데, 그는 실험용 쥐에 14가지 젤라틴(콜라겐을 물과 끓여 젤리로 만든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주사한 후 암세포를 과량 주사하였다. 실험결과 돈피 유래 젤라틴을 주사한 쥐들에서는 83%가 암에 걸리지 않고 생존했다 (젤라틴을 주사하지 않은 쥐는 0%, 소 또는 고래유래



[그림] 암세포를 쥐에 주입했을때(붉은색 왼쪽)와 콜라겐 III를 같이 주입했을 때(푸른색 오른쪽)의 암세포 크기 비교. 콜라겐III는 20일 동안 암세포의 성장을 눈에 띄게 (95% 이상) 저해했다.

젤라틴에서는 30%이하 생존). 그 후 추가 실험으로 살아남은 쥐들에게 암세포를 계속 주사했지만 암은 발생하지도 전이 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암에 대한 면역은 1대에서 그칠 뿐 새끼들에게는 유전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암은 면역력이 약해질 때 특히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재발이 많은데, 젤라틴이 보여준 우수한 예방 효과는 대단히 고무적이었다. 젤라틴에 미량의 면역활성제를 첨가했을 때 macrophage(대식세포)의 활성화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면역력이 증가하였다.

콜라겐과 마이크로파지(macrophage, 대식세포)의 상호작용

암세포 같은 이물질 항원에 대해 면역력을 가진 항체로는 대식세포라고 하는 macrophage와 임파구의 Immunoglobulin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골수의 줄기세포로부터 분화한다. Macrophage는 폐나 뼈조직에서 대기하다가 1-2분만에 온몸을 순환하는 혈류를 따라 이물질이나 암세포에 빠르게 접근해 먹어치우는데 콜라겐은 100배로 macrophage의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그 후 임파구의 Immunoglobulin이 접근해 본격적으로 암세포를 파괴함으로써 면역기구의 연대활동이 작동된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35% 정도는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콜라겐은 세포를 접착하여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면역작용을 하는 macrophage에는 콜라겐 결합 부위가 있어 암이나 이물질에 대한 효과를 증대시킨다. 두개의 시험관에 macrophage를 넣고 한쪽에만 콜라겐을 넣은 후, 배양 암세포를 각각 넣은 실험에서는 콜라겐을 넣은 쪽에서 macrophage가 100배 빠르게 암세포를 먹어치웠다. 즉 콜라겐

과 결합한 macrophage는 100배로 면역력이 상승된 것이다. 돼지 머리 고기와 돼지족발은 양질의 돈피 콜라겐이 젤라틴화 된 것으로 강력한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Mount Sinai 연구진과 박형진 교수가 인용한 논문과는 공통점과 함께 다소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으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큰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다. 모두 쥐에게 콜라겐과 암세포를 주사해서 재발 또는 전이를 방지시켰고, 전자는 콜라겐의 신호체제 변화로 후자는 macrophage의 면역력 강화로 설명했다. 후자는 면역력 강화, 즉 대식세포가 암세포를 먹어치웠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암세포를 잠자는 휴면상태로 만들어 놓았을 수도 있고, 쥐에게서 콜라겐을 주사해 얻은 결과를 인간이 식용으로 섭취해 얻은 결과와 혼용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다. 콜라겐의 약물 전달과정, 즉 소화기관으로 섭취하는 것과 주사, 또는 신체내 세포에서 합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어쨌든 독립된 두 연구에서 암의 재발과 전이를 콜라겐만으로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결론은 매우 고무적이다.

콜라겐은 돼지족발 머리고기 돼지껍질 소힘줄 닭가슴살 조개류 등에 많이 들어 있으며 물과 오랫동안 끓이면 젤라틴이 된다. 콜라겐을 섭취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된 후 다시 필요한 콜라겐으로 합성되는데, 아미노산이나 가수분해된 콜라겐은 콜라겐을 합성하는 원료는 되겠지만 항암효과를 가진 콜라겐III형과는 차이가

있다. 콜라겐 보충제들은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해준다는데 의미가 있는거지 소화계통을 통해 콜라겐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건 아니다. 그래서 콜라겐 보충제를 회의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아미노산 2-3 개가 결합된 작은 분자량의 가수분해 콜라겐(Marine Collagen)과 비타민 C를 함께 복용하고 있고, 영양학자나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한 연구들에서는 소화기관을 통해 흡수된 콜라겐도 효과적이었다는 실험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콜라겐 주사로 쥐에게서 얻은 결과를 인간에게서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므로 빠르게 후속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m-RNA를 이용해 세포에서 콜라겐을 합성하는 방법인데, 단백질 합성은 DNA로부터 messenger-RNA를 통해 단백질이나 콜라겐을 만들라는 지시를 세포에 전달해줘야 한다. 코로나 백신을 최초로 만들었던 Pfizer 와 AstraZeneca는 코로나 virus의 돌기부분 단백질을 합성하라는 지시를 담은 m-RNA를 세포에 주사해 돌기를 만든후 항체를 형성시켜 코로나 백신에 성공했다. 그리고는 m-RNA를 이용해 원래부터 해 오던 항암치료 또는 암백신 개발로 되돌아가 전념하겠다는 선언을 했던 기억이 난다. 가까운 장래에 m-RNA를 주사해 세포에서 콜라겐을 충분히 만들고 20대 때의 부드러운 관절 피부와 함께, 암을 잠재우고 치료하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해본다.

[한국여행기 5면에서 계속]

National Geography에서 보던 바다 밑 풍경을 기대하며 6만 오천 원 제법 비싼 관람료를 내고 바다 밑 45m - 예쁜 산호와 각종 물고기 보는 정도 -- 직선으로 내려 갔다가 금방 올라와서 너무 아쉬운 느낌이었다. 가장 인상 깊은 곳은 제주에서 배를 타고 우도에 가서 HUNDERTWASSAR PARK와 MUSEUM을 볼 수 있던 일이다. Friedensreich Hundertwasser는 Gustav Klimt와 함께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화가이며 독특한 모습의 건축을 창조해낸 건축가로서 2000년 그의 사망 이후 오스트리아 재단의 감수아래 건축된 작품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건축작품이라고 한다. 마침 그의 작품전도 있어 너무도 좋은 기회였다. Park는 전체가 예술 작품으로 색채 미술사라는 그의 작품과 우도의 신비한 아름다움을 담은 테마 파크로써 놀랍고 신비스러운 흥미 진진한 곳이 우리나라 남쪽 섬에 존재함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그 외에도 이중섭, 이알중, 김창열 등 등 작은 Museum들도 볼만했다. 이근희 1주년 기념 전시회도 예약해서 구경했고, 윤보선 전 대통령 古家 정원에서 열린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주관 매년 열린다는 서울 스프링 실내악 축제, 그리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시립 교향악단이 함께하는 지휘자 티에리 휘셔의 생상스 교향곡 2번을 친구 아들의 배려로 관람할 수 있어서 시향의 어마어마한 규모도 놀라웠고, 짝 차 있는 관중들도 한국의 발전 모습을 보는 듯했다.

1470m 발왕산 케이블카도 타보고, 수심 45m 되는 잠수함도 타보고, 비행기로 남해도 그리고 배 타고 우도에도 가보고 --

모든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 말씀대로 늘 돌봐 주시는 주님과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한다.



회원 명단 (114명 / 2022-7-24)

강교숙	김병순	최숙희	오유섭	이준행	최병우
강에드	김상만	박희병	오인석	이준희	최수용
강영선	김승호	배상규	유규환	이행순	최순채
계동휘	김영덕	성기로	유무영	이흥빈	최진희
고애자	김영만	손갑수	윤선구	임도혁	최진영
곽상준	김우영	손경택	윤종숙	임창우	최철용
곽선섭	김익성	손대홍/	윤현남	임호순	최학주
곽승용	김인형	남중현	이강홍	정도현	추재욱
구달희	김정필	손옥화	이민제	정수일	한영수
권정덕/	김종울	송근숙	이상무	조달훈/	한영오
홍선경	김창수	송웅길/	이 준	조승자	한대진/
권영대	김치갑	송현자	이대연	정해민	안용희
권태전	김태일	송학린	이대영	조상근	허용웅
금영천	김한중	송혜순	이범선	주상선	허유선
김광수	김현중	신진식	이수호	주재양	홍사만
김광현	노용면	신응남	이용대	진봉일	홍정표
김동건	민준기	양인회	이전구	천병수/	홍지복
김문경	박기환	오순문	이종대	천종화	홍종만/
김문연	박준구/	오용호	이종석	최구진	홍예경

골든클럽 2022년 행사 일람 (2022-7-24)

1월	23-29일	플로리다 골프트립 (12명 참가)
3월	26일(토)	신년교례회 -Atrium of Tenafly (81명 참가)
4월	14일(목)	Hiking - Lake Skannatati -취소
	21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38명 참가)
5월	18일(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Walkkill (39명 참가)
	26일(목)	여성회원 피크닉 (18명 참가)
6월	9일(목)	Golf Outing - Split Rock Golf Club (45명 참가)
	16일(목)	Picnic - Rockland Lake State Park (50명 참가)
	23일(목)	Zoom seminar (슬기로운 supermarket)
7월	14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37명 참가)
	28일(목)	Barnes Museum Tour, Philadelphia (취소)
8월	11일(목)	Golf Outing - Valley Brooks
	20일(토)	뉴욕지역동창회 Picnic
9월	15일(목)	Golf Outing
	18-30일	한국방문여행
10월	12일(수)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20일(목)	Harriman State Park 산행
11월	3일(목)	Golf Outing
12월	3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1월	22-28일	골프트립, West Palm Beach, Florida
4월	1일(토)	신년교례회

2022년 연회비 납부 명단 (84명 / \$8400 / 2022-7-24)

강교숙	김문경	김현중	송웅길	이대연	임창우	최준희
강에드	김병순	민준기	송현자	이대영	임호순	최진영
강영선	김상만	박기환	송학린	이민제	조달훈	최철용
고애자	김승호	박희병	신응남	이상무	조승자	한영수
권정덕	김우영	배상규	신진식	이용대	진봉일	한영오
권태전	김익성	성기로	오순문	이전구	정도현	한대진
계동휘	김종울	손갑수	오용호	이종대	정해민	안용희
곽선섭	김창수	손대홍	오유섭	이종석	주재양	홍선경
금영천	김태일	남중현	오인석	이 준	천병수	홍종만
김광수	김치갑	손경택	윤선구	이행순	천종화	홍예경
김광현	김정필	손옥화	윤현남	이흥빈	최병우	홍정표
김동건	김한중	송근숙	이강홍	임도혁	최순채	홍지복

2022년 후원금 기부 명단 (27명 / \$16600 / 2022-7-24)

강에드 300	김한중 300	신진식 300	이준행 3000	한용오 200
곽선섭 100	박준구 1000	오용호 300	이행순 200	한대진 500
권정덕 200	송학린 1000	오유섭 100	임호순 300	홍종만 1000
금영천 300	성기로 300	이강홍 200	정해민 500	
김승호 2000	손경택 1000	이전구 1000	천병수 300	
김종울 200	신응남 500	이종대 200	최철용 300	
동창회 1000				

2022년 입회비 납부 명단 (5명 / \$1000 / 2022-7-24)

김치갑	송혜순	이민제	임창우	허유선
-----	-----	-----	-----	-----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20,000 / 2022-7-26)

이준행 2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T) 201-965-7759 (E) jaypkim@keiusa.com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주소 (Home): _____

입회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_____

8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곽상준(약대55) 홍종만(공대64)
- 김상만(법대52)
- 김한중(의대56)
- 송웅길(대학원)
- 이대연(약대65)
- 정해민(법대55)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Google Chrome 활용요령: 매주 화요일 10-12시
 Google Meet로 진행
 문의, 홍종만 646-3426-2667
 MS PowerPoint, 영상제작: 매주 토요일 10-12시
 Zoom 화상강의로 진행
 문의, 우규환 201-566-3665